

신라·가야 토기와 시대 초월 특별한 동행



1.

지금으로부터 약 1천600년 전, 죽은 이와 함께 했던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가 전하는 특별한 동행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진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내년 3월10일까지 특별전 '영원한 여성, 특별한 동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 두 번째 순회전으로, 신라·가야 토기에 나타난 고대 장송의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는 죽은 이후에도 편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죽은 이와 함께 무덤에 넣어진 의례용품이다.



2.

●내년 3월1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국보 경주 토우장식 항아리 등 246점 전시품 선봬 고이건희 회장 기증 뿔잔도...고대 장송의례 '한눈에'

이번 특별전에서는 총 245건 246점 전시품을 선보인다. 국보인 경주 계림로 출토 토우장식 항아리가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또 최근 발굴한 해남 읍호리 고분군 출토 부뚜막모양 토기도 새롭게 복원해 선보인다. 고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말모양 뿔잔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크게 2개 주제로 구성됐다. 1부 '영원한 삶을 위한 선물, 상형토기', 2부 '헤어짐의 이야기, 토우장식 토기'다. 상형토기는 사람, 동물, 사물을 본떠 만든 토기로, 술과 같은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어 제의에 사용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라와 가야



3.

지역에서는 거대한 무덤에 많은 꺼문거리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후장 풍습이 존재했다. 새, 상서로운 동물, 말, 수레, 배 등 상형토기를 부장품으로 함께 묻으며 죽은 삶과 삶을 연속된 세상으로 바라보려 했던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을 들여다볼 수 있다. 토우장식 토기는 휴인형인 토우를 토기 곁에 부착해 장식한 그릇이다. 상형토기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준비하며 만든 제의용품이다. 망자가 사후세계에 잘 적응하고, 남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사냥을 하고 일하던 모습,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던



4.

던 각종 동물들이 토기 위에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특히 2부 전시장에서는 1926년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수습한 토우장식 토기를 다수 소개하고 있으며, 토우에 표현된 당시 장송의례와 일상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초등학교 가족 대상 교육 '토우야 반가워'는 천연점토로 나만의 토우를 만들어보는 체험학습이다.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와 함께 전시품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상형토기, 토우장식 토기를 통해 고대의 내세관과 장례를 이해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인간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5.

- 1. 고이건희 회장 기증 말모양 뿔잔
- 2. 해남 읍호리 고분군 출토 부뚜막모양 토기
- 3. 경산 조영동 세모양 토기
- 4. 경주 황남동 출토 거북이와 물고기 토우장식 무덤
- 5. 국보 경주 계림로 출토 토우장식 항아리



광주아버지합창단 특별 콘서트 '민중의 노래들'

오늘 광주예당 대극장

문화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아버지들의 특별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사진> 광주아버지합창단(단장 오동준)의 제33회 정기공연 '민중의 노래들'이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 오프닝송 '소나무'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스테이지와 특별공연 등 총 13곡을 선사한다. '동백섬', '넙은 먼곳에' 등 가곡을 비롯해 뮤지컬 '영웅'의 '단지동맹', '누가 죄인인가'

까지 다채로운 곡들이 준비돼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한글 교육, 출가찬가' 등 3곡을, 어머니들의 하모니 맘마싱어즈는 '꽃피는 날', '애니메이션 메들리' 무대를, 에르주네스(이채연·김성민·장수빈)는 '신호등', '아름다운 나라' 곡을 들려준다. 윤주승 색소폰 연주자의 감미로운 연주도 만나볼 수 있다. 지휘는 윤원중, 피아노 반주는 윤영주가 맡으며 건반악기 일렉톤 연주자 최우리와와의 협연으로 풍성한 음악과 감동을 선사한다. 공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이다. /최명진 기자

음성해설·수어·문자 통역으로 만나는 '뿔난오니'

15-17일 ACC재단 창제작 어린이공연

"색과 모습이 달라도, 우리 친구할 수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5-17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모두를 위한 극장 '막대 툽툽 피지컬 뿔난오니' 접근성 공연을 선보인다. ACC 창제작 어린이공연 '막대 툽툽 피지컬 뿔난오니'는 일본 작가 허마다 히로스케의 동화 '올어버린 빨강 도깨비'의 교훈에 재미와 감동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다양한 소품과 신체 언어를 활용한 2인극으로 '어디로 뿔지 모르나 주고 받을 때 더 의미 있는 공'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색과 모습이 달라 외면 받는 빨간 오니가 친구인 파란 오니의 희생을 통해 인간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나눔'과 '다양성'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장애인 관객을 비롯해 어



는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극장 환경을 제공하는 무장애 공연으로 진행된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점자 홍보물과 공연 정보를 음성 소개, 수어 통역 안내 영상 등으로 사전 제공한다. 또 공연 장면을 설명하는 음성해설, 대사를 몸짓과 수어로 표현하는 수어통역, 소리를 문자로 전달하는 문자통역 서비스 등을 통해 관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시·노래·유머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내일 남구문화예술회관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오는 15일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제42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가수 손희종이 '추억의 소야곡', '울며 헤진 부산항' 무대로 막을 올린다. 이어 가수 이명희의 '풍악을 울려라', '진또배기' 공연과 함께 김영록 마술사의 중국 변검 마술 무대가 펼쳐진다. 양 소장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이 비를 맞아요' 가요 무대에 이어 가수 채호가 '칠갑산' 대금 연주와 가요 '청춘화살' 공연을 선보인다. 김정희 회벨리댄스 마스터의 벨리댄스 공연이 무대 분위기를 돋우며 가수 이채현, 민심, 선민균, 연유, 전유정, 은빈, 신동석, 아인의 무대가 잇따라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